



사회주의 도시 ‘개성’의 연속과 변화 연구

Gaeseong as a Socialist City : What was changed, and What was not

저자 (Authors)	박소영 Park, So-young
출처 (Source)	역사와현실 , (98), 2015.12, 341-379 (39 pages) YŎKSA WA HYŎNSIL :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 (98), 2015.12, 341-379 (39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역사연구회 The Organization Of Korean Historians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573561
APA Style	박소영 (2015). 사회주의 도시 ‘개성’의 연속과 변화 연구. 역사와현실 , (98), 341-379.
이용정보 (Accessed)	동국대학교 210.94.208.*** 2018/03/09 19:5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사회주의 도시 '개성'의 연속과 변화 연구

박 소 영*

머리말

1. 북한 도시의 계획과 건설
 - 1) 북한의 도시와 도시계획
 - 2) 북한 지방도시의 건설
2. 북한 지방도시 '개성'의 변화
 - 1) 개성의 역사와 도시의 변화
 - 2) 사회주의 개성의 탄생
3. '개성'의 도시구조와 공간적 재구성
 - 1) 개성지역의 연속성
 - 2) 사회주의 도시 '개성'의 변화

맺음말

머리말

도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생활방식을 담고 있다. 도시는 도시민의 삶과 지향에 따라 만들어지고 성장하거나 변화하며 때로는 정체·소멸하기도 한다. 이에 도시의 역사를 연구하는 도시사 학계에서는 도시를 사회·문화적 변화의 구조이자 주체로 파악하며, 도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강사

대표논저 : 2010 「북한 지방문화의 획일화와 지방공동체의 해체」 『북한학연구』 6-2
; 2010 「개성신문을 통해 본 1956년 개성인민위원회 선거」 『통일정책연구』 19-1

시민의 투쟁으로 공간의 구조가 변화하고, 공간 구조 자체가 역사적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¹⁾ 대표적으로 조선의 수도 한양은 수도로 결정된 이후 조선 건국이념인 유교에 의해 설계되면서 조선왕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왕이 거거할 궁궐을 중심으로 도성과 4대문, 종묘·사적의 위치도 유교적 이념이 구현되도록 건설 및 정비되었다. 한양 도성이 축조된 이후에는 고려 남경시기부터 거주하였던 원주민들은 성 밖으로 내보내고, 조선왕조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개경 주민들을 이주시켜 새로운 왕조의 서막을 열게 했다.²⁾ 이처럼 한양은 도시와 도시민, 도시공간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조선의 역사를 만들었다.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한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도시를 재구성하였다. 중앙집권적 정치·사회·경제체제에 맞게 주민주거지와 산업시설, 행정시설 등을 구획·배치하고, 김일성 동상을 비롯한 혁명사적지를 만들어 도시의 중심으로 삼았다. 또한 인구이동과 과도한 도시 확장을 억제하는 한편 유사시 도시의 자립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도록 기획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도시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중앙-지방관계를 벗어나 지방의 생존과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 상황에 맞는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시장이 활성화되고 주민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함흥이나 청진, 원산 등의 도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경제특구가 곳곳에 지정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 간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북한 당국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북한 지방도시는 과거 그 지방이 경험했던 역사와 지역적 특성을 근거로 발전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북한지방과 지방도시 연구는 각 지방마다의 역사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
- 1) 민유기, 2007 「한국 도시사 연구에 대한 비평과 전망」 『사총』 64, 역사학연구회, 133쪽
 - 2) 고동환, 2005 「조선초기 한양의 형성과 도시구조」 『지방사와 지방문화』 8-1, 96쪽

그중 개성은 서울, 평양과 함께 한반도의 대표적인 도시로 손꼽히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방도시라 할 수 있다. 개성은 고려 시대 황도(皇都)로서 도시발전을 시작한 이래로 시대에 따라 변화·발전해왔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개성은 월남한 개성주민들의 갈 수 없는 '고향', 혹은 '미수복지구'로만 기억될 뿐 남한의 역사에서 한동안 사라져야 했다. 그러나 개성은 북한지역에서 '신해방지구',³⁾ '변경도시'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도시중심축 이동, 공적 도시기능 및 공간 확대, 시장 축소, 주거와 노동구역 재배치 등 도시경관의 변화도 겪어야 했다.

그리고 2002년 남북경제협력에 위한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남북 당국 간 회담과 남북교류협력 관련 회의가 종종 개성에서 개최되면서, 개성은 남북 관계의 화해 및 공존을 실험하는 공간으로 재등장하였다. 이처럼 개성지역의 위상과 경제사회적 기반이 달라지면서 개성에 대한 연구도 재개되었다. 재등장한 연구는 대부분 고려와 조선, 일제강점기의 개성(송도, 개경)에 관한 연구나⁴⁾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산업적인 측면에서⁵⁾ 진행되었다. 그에 비해 사회주의 아래 개성의 변화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⁶⁾

-
- 3) 북한 당국은 해방 후 38도선을 기준으로 이남이었던 개성·판문·개풍·용진·남연백군(지금의 황해남도 연안군·배천군의 일부) 지역을 한국전쟁 이후 지배하면서 '신해방지구'라고 명명하였다(강상호, 1990 「신해방지구에서 농업협동화를 위한 투쟁과 빛나는 승리」 『경제연구』 69, 평양 :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43쪽).
 - 4) 고동환, 2009 「조선후기 개성의 도시구조와 상업」 『지방사와 지방문화』 12-1 ; 고동환, 2010 「한국 도시사 연구동향 -고려 개경과 조선 한양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07 ; 양정필, 2007 「1930년대 개성지역 신진 엘리트 연구 -『고려시보』 동인의 사회문화운동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3 ; 우성훈, 2010 「고려시대 개경 시장의 도시사적 위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6-5 ; 박평식, 1998 「조선전기의 개성상업과 개성상인」 『한국사연구』 102
 - 5) 김정훈, 2014 「남북한의 경제적 낙차효과를 활용한 “개성자유도시” 건설사업」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고려시대의 황성과 성균관, 조선시대 기와집, 그리고 사회주의적 광장과 학생소년궁전 등이 공존하고, 하이힐을 신고 출퇴근버스를 타고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개성은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왔다. 50년 단절된 역사의 복원 없는 개성은 여전히 낯선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전쟁 이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북한의 지방도시 ‘개성’의 도시공간과 경관의 변화를 통해 해방 이전과 현재 개성을 바라보는 시각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자 한다.

1. 북한 도시의 계획과 건설

1) 북한의 도시와 도시계획

북한의 도시 연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시작되었다. 상대적으로 방문이 자유롭고 자료가 많은 평양 연구에서 시작된 북한 도시 연구는 최근 개성과 함흥, 원산, 평성 등 지방도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북한 지방도시 연구에는 1990년대 중반 북한 경제·사회체제가 이완되면서 발생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술자료가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험담은 제한된 자료와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북한 도시 연구를 보완할 수 있었다. 또한 신문 등의 문헌자료와 함께 지도와 도시 및 건축설계도면, 사진, 위성사진, 각종 영상 등 다양한 시각적 사료를 이용하면서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⁶⁾

6) 송경록, 2000 『북한 향토사학자가 쓴 개성이야기』, 푸른숲 ; 박소영, 2010 『북한의 신해방지구 개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체성과 지방통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참조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이완되면서 사회주의의 대표 도시를 표방하며 개발과 재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평양은 물론이고, 일찍이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던 나선과 원산지구를 비롯한 지방도시에서도 최근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또한 2013년 13개의 경제특구지역이 발표되면서 각 도시의 특성에 기반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대부분 작은 규모로 유지되고 있는 북한 지방도시에서 도시의 변화는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주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북한의 도시, 특히 지방도시의 연구는 북한 사회 변화의 깊이를 파악하는데 유효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북한 도시계획과 정책의 기초는 사회주의 이념과 주체사상에 기초하며, 노동 간 균형개발 원칙 하에 계획경제의 경제발전 수단으로 진행되어 왔다.⁸⁾ 사회주의 이론가와 건축가들은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노동계층의 삶의 질은 하락하기 때문에, 대도시는 노동자와 부르주아가 충돌하는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인구이동을 통제하고 도시의 확장을 억제하여 주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⁹⁾ 북한 역시 “도시의 규모는 너무 크게 하지 말며, 작은 도시 형태로 많이 건설”하는¹⁰⁾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계획에 의거하여 도시의 급속한 확장을 억제하였다. 그 결과 인구 100만 이상의 평양과 60만 정도의 함흥·청진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30~40만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¹¹⁾

북한의 도시 복구와 도시건설은 국가종합도시계획설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북한은 「내각결정 제126호 : ‘도시복구 및 건설 계획실시를 보장할데 관하여’」를 채택하면서, “도시의 복구 및 도시 내에 대지, 건설은 국가종합

7) 고유환·박희진, 2013 『북한도시 함흥·평양 자료해제집』 1, 선인, 151~191쪽

8) 김청희, 1953 『도시건설』, 평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122~125쪽

9) 임동우, 2013 「평양 ‘도시’로 읽다 : 평양의 도시 공간과 그 미래」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세미나 발표자료집』, 7쪽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제15조 2항

11) 김두섭 외, 2011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통계청, 177쪽

도시계획설계에 의하여 실시한다. 도시 내에 대지, 건물, 시설물 및 기타 지상을 가진 일체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들은 도시건설설계에 의무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¹²⁾ 이 같은 도시계획에 의해 북한은 도시 중심부에 김일성동상과 광장, 행정 및 권력기관의 청사 등을 건설하였다. 도심 주변에는 주민거주지와 고등교육시설을 배치하고, 문화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두었다. 유해성이 적은 공장과 기업소는 거주지와 인접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출퇴근의 편의를 고려하였다. 또한 대중적 집회와 문화행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광장을 마련하였다. 해방 직후에는 철도역 앞 광장이나 운동장 등을 임시로 활용하였고, 새로운 도시계획이 진행되면서부터는 도심 한가운데나 철도역 근처에 광장을 설치하고 공원과 연못 등을 만들었다. 또한 일본인 거류지를 철거하고 새롭게 주거지역을 만들었고, 그 주변에 학교와 문화회관·유치원·병원 등 주민편의시설을 배치·건설하였다.

사회주의 도시로의 본격적인 이행은 한국전쟁 이후 진행되었다. 폭격은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전통적인 대도시들을 파괴하였다. 때문에 해방 직후 진행되었던 도시정비사업은 도시복구 혹은 재건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수도인 평양은 휴전 직후인 1953년 7월 30일 「평양시 복구 재건에 관한 내각결정 제125호」가 채택되면서 본격적인 재건사업이 시작되었다. 전쟁의 폭격으로 폐허나 다름없었던 평양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공간으로 기획되었다. 불가리아와 헝가리가 평양 재건을 지원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의 신도시 건설 기회를 잡게 된 도시건설 전문가들은 평양에 사회주의 이념이 가장 잘 발현되도록 수도의 위엄을 갖춘 도시재건 계획을 수립했다.¹³⁾

12) 「내각결정 제126호 : ‘도시복구 및 건설 계획실시를 보장할데 관하여」 『조선중앙연감 1954-1955』,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60-61쪽

13) 임동우, 2013 앞의 논문, 54쪽

평양은 대동강에서 보통강까지 확장된 인구 100만 도시로 계획되었고, 도시 내 생산구조를 두어 공업과 주거가 결합된 도시로 재건되었다. 또한 도시 내 역사적·기념비적 장소 근처에 넓은 공간을 주민들의 휴식을 위해 배치하여 노동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1960년대부터는 대규모 건물과 기념비적 건축물을 건설하여 사회주의 이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¹⁴⁾ 그 결과 평양은 사회주의권에서도 상당히 성공적인 계획도시로 재탄생되었다.

2) 북한 지방도시의 건설

북한은 1946년부터 1947년까지 사회주의 수도인 평양 정비사업을 진행하였으며,¹⁵⁾ 1947년에는 흥남시, 1949년에는 청진시·김책시·남포시·원산시·신의주시 등 지방도시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시작하였다.¹⁶⁾ 한국전쟁 이전 북한 정권은 조선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던 도시기반시설을 이용하고자 했다. 갓 해방된 나라에서 도시 전체를 재건하는 부담을 갖기 보다 기존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시설과 교육시설 등을 몰수하여 수리 후 이용하고, 공장 등 산업시설도 보수하여 활용하였다.

대신 식민지 기억은 삭제하고 그 위에 사회주의 체제를 덧씌우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중심에 있었던 신사와 신궁, 위령탑 등 일제의 기념물은 철폐하여 공원화하였다. 형무소는 폐쇄하거나 용

14) 임동우, 2013 앞의 논문, 8~9쪽

15) 1946년 9월 5일 진행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제2차 확대위원회에서는 평양시를 민주수도로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평양시 특별시정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고, 평양시를 특별시로 승격하였다(『로동신문』 1946. 9. 6.).

16)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조선건축사』, 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05쪽

도변경하여 다른 시설로 이용하였다. 교회당 건물은 극장으로 재건하고 그에 딸린 재산은 몰수하여 사회주의적 이념과 배치되는 종교 세력은 해체하였다.¹⁷⁾

주요 지방도시 재건사업은 한국전쟁 이후인 1954년부터 시작되었다. 전쟁의 폭격으로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3월 11일에는 「청진, 함흥, 원산, 사리원, 강계 및 남포시 재건을 위한 총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내각결정 제42호」가, 1954년 6월 15일에는 「신의주, 송림 및 김책시의 도시재건을 위한 총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내각결정 제85호」가 채택되었다.¹⁸⁾ 당시 도시재건사업은 주민들의 노동과 생활편의, 위생 및 휴식시설 확충, 도시 주변의 농업지역 지정 및 국가추도시설의 설치 등 8가지의 원칙 아래 진행되었다.¹⁹⁾

불가리아와 헝가리의 지원 아래 평양이 복구된 것처럼 주요 지방도시 재건에도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와 지원이 있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체코 등은 청진의 재건사업을 지원하였고, 동독은 함흥 재건사업을 지원하였다.²⁰⁾ 이처럼 사회주의 국가들의 도시재건 지원사업을 통해 북한은 신속하게 지방도시를 복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도시계획과 경영에 대한 경험과 지식도 배울 수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새롭게 건설된 지방도시는 유사시에 하나의 도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생필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방산업·공업을 발전시켰고, 도시 외곽에는 농경지를 두어 식량도 가능한 자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에는 의학전문학교와 사범학교,

17) 김청희, 1953 앞의 책, 112쪽

18) 『조선중앙연감 1954~1955』,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416쪽

19) 김청희, 1953 앞의 책, 153~154쪽

20) 장세훈, 2004 「공간구조 변화를 통해 본 북한 지방 대도시의 도시화 과정」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한울아카데미, 32쪽

체육 및 예술학교, 공업·상업전문학교를 설립하고, 산간지역에는 임업전문학교, 해안지역에는 수산전문학교 등 지리·지형적 특성에 맞게 전문학교를 설치하여 지역 인재로 하여금 지역경제·사회발전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 간 균형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소도시를 각 도별로 고르게 분산시켰다.²¹⁾ 경제발전의 효율을 도모하면서 주민 경제 및 사회생활의 편의를 고려하여 각 도시마다 구조와 경관을 구상하였고,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일반성을 제외하고는 각 도시가 겪었던 역사적 경험과 위치, 자연조건 및 보유하고 있는 자원 등을 기반으로 건설되었다. 일제강점기부터 대도시·공업도시였던 함흥은 북한 사회주의화 및 산업화 방향이 투영된 북한 최대 공업도시로 재건되었다.²²⁾ 도시재건 과정에서 함흥은 1956~1957년 연간 3500만 루블의 동독 자금을 지원받아 시멘트와 비날론 공장 등이 재건되면서 대표적인 공업도시의 명성을 이룰 수 있었다.²³⁾ 또한 평양 근처에 있는 평성은 1960년대 후반 현대적인 과학단지와 이과대학 등을 건설하여 북한 최고 인재들이 밀집한 신흥 위성도시로 성장하였고, 최근에는 국내외 상품들이 모이는 최대 시장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상업도시로 전환되고 있다.²⁴⁾

21) 임형택, 2009 「북한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 전망 -북한내부요인과 통일 이후 경기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1-3, 경기개발연구원, 91쪽

22) 고유환·박희진, 2013 앞의 책, 16쪽

23) 김면, 2002 「독일국립문서보관소 소장자료를 통해서 본 북한과 동독의 경제협력」 『북한연구학회보』 7, 96~97쪽

24) 홍민, 2013 「북한연구에서 ‘공간’이해와 도시사의 가능성」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 한울아카데미, 126~127쪽

2. 북한 지방도시 ‘개성’의 변화

1) 개성의 역사와 도시의 변화

개성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서해와 예성강, 임진강이 인접해 있어 오래 전부터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신라 후기부터는 현재 개풍군에 있었던 벽란도를 이용하여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부를 쌓아올린 개성 주변의 지방호족이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다. 그 결과 개성지역의 호족이 고려를 건국하면서 개성은 470여 년간 고려 황도로서, 정치사상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다져나갔다. 고려 개성은 자연발생적인 도시구조 위에 황도로 정해진 이후 약 100년의 기간을 걸쳐 황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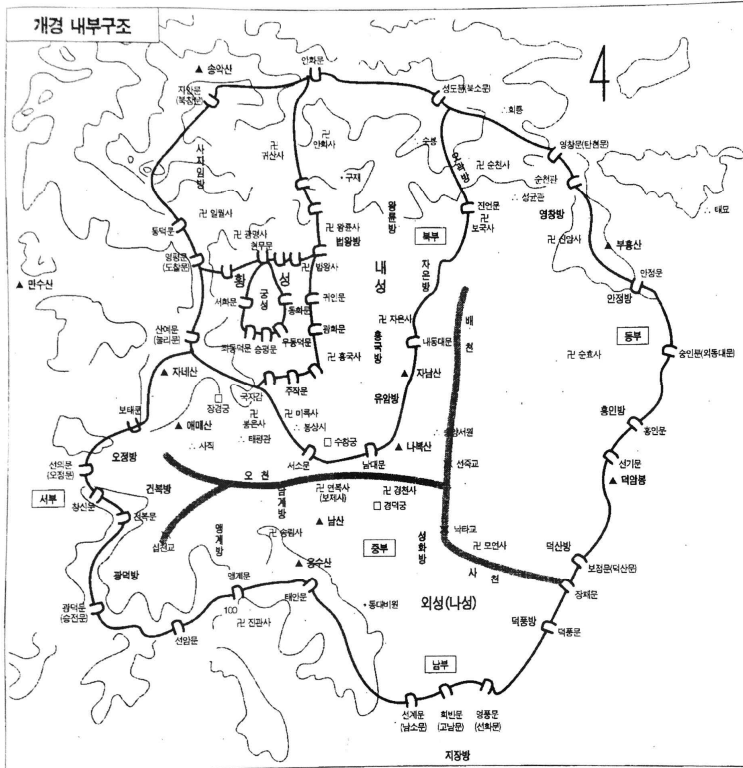
개성의 모든 건물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건설되었으며 황도의 위엄을 갖추었다. 궁성과 내성·외성이 만들어지면서 황도를 방어하고 자연스러운 도시 구분이 이루어졌다. 광화문 남쪽에 있었던 흥국사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길인 남대가 좌우에는 시전을 형성되었고, 남대문 주변에 우마시(牛馬市)와 저시(猪市), 지시(紙市) 등 다양한 산물이 유통되는 시전이 활발히 운영되었다.²⁶⁾ 또한 송과 아라비아·일본 등 외국과 폭넓은 교류도 진행되어 무역 중심지, 상업도시, 행정과 문화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개성은 황도의 모습을 상실했다. 조선왕조는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고 개성을 ‘송도현’으로 그 지위를 낮추었다.

기준에 고려시대 황도로서 받았던 모든 특권을 박탈하고, 고려왕조 귀족

25) 고동환, 2010 앞의 논문, 358쪽

26) 우성훈, 2010 「고려시대 개경 시장의 도시사적 위치에 관한 연구」 『대한건설학회 논문집』 26-5, 183쪽



〈그림 1〉 고려시기 개성 내부구조

(출처 : 홍영의, 1998 「고려 수도 개성의 위상」, 『역사비평』 45, 368쪽)

에게 주어졌던 수조권을 몰수했다. 게다가 평안도, 제주도 사람과 함께 과거 거시험응시를 제한한 ‘송도인종신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개성은 정치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되었다.²⁷⁾ 조선 태종은 개성주민과 상인을 한양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약 5년간 ‘시정금지정책’을 실시해 개성 인구가 줄고 도시가 황폐해지기도 했다.²⁸⁾

27) 송경록, 2000 앞의 책, 67쪽

28) 고동환, 2009 앞의 논문, 337쪽

조선 초기의 개성지역에 대한 정치적 차별정책은 이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조선왕조에 대한 반발심을 고조시켰다. 정치적 차별과 소외 때문에 개성주민은 중앙정치 참여보다 경제적 부의 획득에 관심을 돌렸다. 조선왕조의 경제적 배려를 기대할 수 없고, 주변의 평야가 넓지 않았기 때문에 개성주민은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중기 이후 개성은 상업 및 수공업 도시로 자리잡게 되었고, 19세기 이후 고려인삼 재배와 홍삼 제조가 확대되면서 거대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일본과의 무역이 확대되면서 개성은 국제적인 상업 도시가 되었다. 그 결과 ‘개성상인’과 ‘인삼의 도시’라는 명성이 탄생하였고, 이는 지금까지 개성을 설명해주는 단어가 되었다. 개항 이후 조선의 상권이 일본과 중국 등 외래상인들에게 잠식되어갈 때에도 개성상인들은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송방을 중심으로 육로시장을 장악하면서 외래 상업자본과 경쟁했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홍삼전매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인삼을 독점할 수는 없었다.²⁹⁾

<표 1> 해방 전 개성시 주민의 직업별 구성(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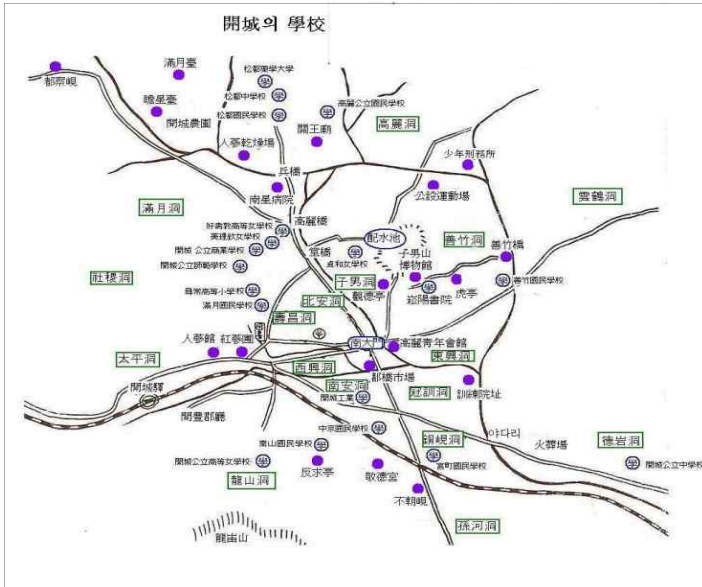
	1938년 현재 직업별 인구통계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기타 외국인	계
농업	4,839	65			4,904
수산업 및 광업	1,072				1,072
공업	4,058	63	6	6	4,133
상업	21,290	339	57	57	21,743
공무 및 자유업	11,364	1,137	7	31	12,539
기타유업	16,128	180	33	33	16,374
무직	7,865	50			7,915
계					68,680

※ 출전 : 『개성신문』 1957. 11. 3.

29) 송경록, 2000 앞의 책, 94-95쪽

1938년 개성지역에는 30% 이상의 주민들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어 상업 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시 부유한 개성상인들은 개성전기주식회사, 고려삼업주식회사, 송고실업장 등 근대적 회사를 설립해 운영했다.³⁰⁾ 그 결과 개성주민들의 평균소득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³¹⁾

다른 지역에 비해 물질적 토대가 갖추어져 있었던 개성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다. 한영서원과 호스돈여학교를 비롯하여 송도고보, 개성중학교, 개성여자중학교, 개성상업학교, 미림여자중학교, 정화실업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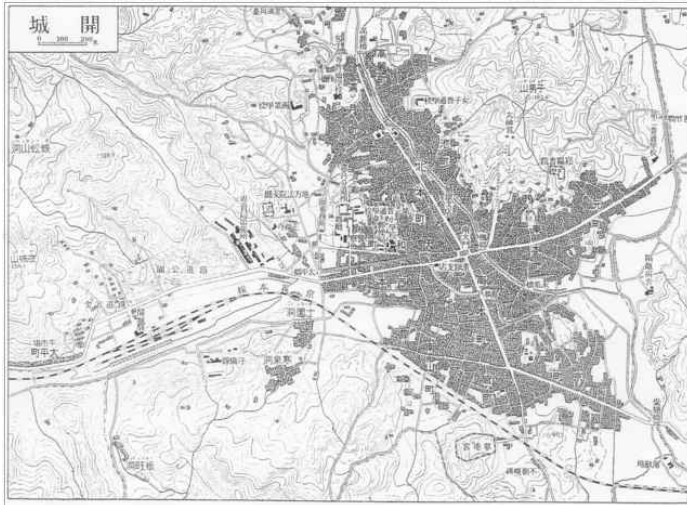
<그림 2> 개성월남민 기억의 개성의 학교

(출처 :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 songninsun&categoryNo>)

30) 양정필, 2007 앞의 논문, 206쪽

31) 편집부, 1999 『개성상인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출판시대, 14쪽

일제는 경의선을 건설하면서 개성의 서쪽 지역에 개성역을 건설하고, 이 주변에 일본인 거주지와 일본인 여관, 철도공원을 조성하면서 새로운 시가지를 수립했다.³²⁾ 1916년 2월에는 개성 남대문이 내려다보이는 자남산 마루에 신사를 건립하고, 개성역과 가까운 당시 대화정(현재 북안동)에는 개성군청과 부청(府廳), 경찰서와 소방대, 부민회관 등 개성지역의 행정시설을 배치하는 등 개성시까지 정비사업을 진행하였다.³³⁾ 이 과정에서 조선시대까지 민가가 많지 않았던 지금의 남문동·남안동까지 주거지역이 확대되었다.



〈그림 3〉 일제강점기 개성지도
(출처 : 1916, 『1만분지 조선지형집성』, 백서방, 31쪽)

32) 김남석, 2014 「일제강점기 개성 지역 문화의 거점 ‘개성좌(開城座)’ 연구」 『영남학』 26, 379~381쪽

33) 개성도서관, 1916 『開城郡面誌 第一輯—高麗王都松都面』, 27쪽

고려시대 이후 융성하던 남대가 좌우의 시전과 남대문 남쪽 도교시장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시장은 일제강점기에도 계속 열렸다. 개성의 가로축 도로인 송도로와 청년로에는 인삼관과 고려청년회관을 건설하여 일제 하에서도 상권이 개성주민과 전통적인 개성의 상업지구에 있음을 과시했다. 또한 1931년 11월 1일에는 개성이 읍(邑)에서 부(府)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자남산 기슭에 개성부립박물관을³⁴⁾ 건립하였고,³⁵⁾ 193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성유지들이 개성주민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해 마련된 '개성좌(開城座)'를 운영하였다.³⁶⁾ 이외에도 개성주민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부윤을 비롯한 많은 행정기구에 참여하여 개성의 시정을 이끌어갔다.³⁷⁾ 이처럼 개성지역은 일제강점기에도 상당한 수준의 경제력과 교육 및 문화수준을 유지했으며, 주민들이 행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개성지역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2) 사회주의 개성의 탄생

해방 직후 38선이 그어지면서 남북은 분단되었다. 개성은 38선을 안은 채 개성시의 대부분과 관문군 지역은 남한의 지배 영역에, 송악산 이북은 북한 지배 영역에 포함되었다. 38선이 개성을 가로지르게 되면서 개성은

34) 당시 서울과 평양, 부여 등지에 건립된 박물관은 전부 일본인이 관장이 되었지만, 개성박물관은 조선사람인 이영순과 고유섭이 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개성부립박물관이 개성지역의 유지들의 기부금에 의지하여 건립되어서였다(정중현, 2010 「일본제국기 '開城'의 지역성과 (탈)식민의 문화기획」 『동방학지』 151, 313~314쪽).

35) 당시 개성부립박물관은 개성신사 남쪽, 개성역으로부터 17정(丁) 거리의 자남산 남쪽에 위치하였다고 한다(최석영, 2001 「일제강점기 박물관의 전시 성격 -개성·평양부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연구』 3, 78쪽).

36) 김남석, 2014 앞의 논문, 377~378쪽

37) 정중현, 2010 앞의 논문, 313쪽

남북 대치의 최전방 지역이 되었다. 개성 송악산 전투는 한국전쟁 전에 발생한 대표적인 남북 간 군사충돌 사례였다. 1949년 5월 4일 남북 모두 상대방의 월경으로 인해 개전했다고 주장하는³⁸⁾ 송악산 전투로 인해 군사적 피해는 물론, 고려성군관 일부가 파손되고 선죽동 일대에 포탄이 터져 민간인 사망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였다.³⁹⁾ 이 전투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많은 군사적 충돌이 개성 근처 38선에서 일어났다.⁴⁰⁾

1950년 6월에 개전된 한국전쟁은 1951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38선 부근으로 전선이 고착화되었고, 개성지역은 북한의 점령 하에 들어갔다. 1951년 7월 개성이 북한에 편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전회담이 개성 고려동의 ‘래봉장’에서 시작되었다. 정전회담이 진행되면서 개성은 ‘비무장지대’로 선포되었고, 판문점으로 회담장소가 옮겨진 이후에도 유지되어 전쟁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후전과 함께 개성은 공식적으로 북한 정권의 지배 아래 편입되었다. 국가는 정치적 지배를 재생산하고 피지배계급과 분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물리적 억압, 계급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물질적 혜택을 함께 이용한다고 보았던 플라차스(Nicos Poulantzas, 1936~1979)의 견해처럼 북한 정권은 경제적·물질적 혜택과 이데올로기적 침투, 그리고 폭력을 적절히 배합하여 새롭게 편입한 지역을 포섭하기 시작했다.⁴¹⁾

한국전쟁 중 개성이 북한의 지배 지역으로 거의 확정되었던 1951년 중

38) 송악산 전투에 대한 자세한 전말은 정병준, 2006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333~362쪽 참조 남측의 입장은 『조선일보』 1949. 5. 6.을, 북측 입장은 『로동신문』 1950. 2. 6.과 김일성, 1980 「한치의 땅도 적에게 내주지 말라」 『김일성 저작집』 5,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91~94쪽 참조

39) 브루스커밍스 지음, 김동노 외 옮김, 2001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창비, 347쪽 ; 『조선일보』 1949. 5. 7. 참조

40) 정병준, 2006 앞의 책, 263쪽

41) Nicos Poulantzas 지음, 박병영 옮김, 1994 『국가·권력·사회주의』, 백의, 39쪽

반부터 북한 당국은 개성지역에 대한 행정적 지도를 강화하였다. 북한 당국은 1951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정치위원회 제108차 회의를 통해 '해방지구'인 개성과 개풍지역을 중앙에 직속시켰다. 또한 연백지방에서 식량과 연료를 반입하고, 교육·의료시설 등을 보강하였다. 영농을 독려하기 위한 비료와 종곡을 제공하였고, 인민군대를 동원하기도 했다.⁴²⁾

이와 함께 개성지역의 도시정비사업도 진행하였다. 전쟁 중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개성지역이 '비무장지대'로 선포되고 폭격의 피해에서 벗어났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당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일부 파괴된 도시시설이 복구되었고 상하수도 시설이 정비되었다. 1953년 8월 휴전협정이 체결된 직후부터 문화유적에 대한 정비도 시작되었다. 전쟁 중 파괴되었던 개성 남대문 복원은 개성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3개월 만에 마무리 되었고, 만월대도 20여 일 만에 복원이 완료되었다.⁴³⁾ 선죽교와 자남산 주변의 유적지들도 복구되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파괴되었던 관덕정이 1954년 봄에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따뜻한 배려에 의하여 아름답게 수리되었다. 지금 관덕정은 개성의 문화유물보전위원회에 의하여 귀중히 보존되고 있다. 지금 관덕정은 선조들의 전통을 받아 활을 쏘는 인민들의 즐거운 곳이 되고 있다.⁴⁴⁾

이처럼 한국전쟁 시기 개성시의 재건은 대체로 폭격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고, 가옥을 복구·신축하는 등 주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나자 북한 정권은 새롭게 편입시킨 개성

42) 김일성, 1980 「현시기 당단체들과 인민정권기관들 앞에 나서는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7,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75~76쪽

43) 리성순, 2002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개성지구의 력사유적들을 복구하기 위한 투쟁」 『력사과학』 181, 평양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5쪽

44) 『개성신문』 1956. 2. 16.

과 판문, 개풍, 용진과 남연백군 지역을 ‘신해방지구’라고 통칭하고 ‘신해방지구’ 정책을 실시하였다.⁴⁵⁾ ‘신해방지구’ 정책의 일차적 목적은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지원하여 이 지역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전 직후부터 4500여 동의 가옥을 신축하고, 무연탄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였다.⁴⁶⁾ 1956년에는 「황해남도 연안, 배천군과 장평군, 개성지구 판문군과 개풍군 등 신해방지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가일층 안정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제시한 명령 제47호」를 채택하였다. 이 명령에는 빈농민을 위해 3/4분기 중에 건축용 목재와 건축자금 1천만 원을 대부하고 지구 내 국가기관과 농촌지대에 일하는 제대군인에게 신발과 옷을 공급하며, 전기 미가설 지대에 등화용으로 카바이트를 공급할 것 등 ‘신해방지구’의 생활정상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포함되었다. 또한 지구 내 학교 교실과 공민왕릉·고려성군관을 보수하였으며, 5개 군에는 영화관을 신설·보수하고 15개소의 진료소를 증설하도록 했다.⁴⁷⁾ 이외에도 북한 정권은 일시적으로나마 개인상공업과 민간인삼업을 허용·장려했으며, 현물세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신해방지구’ 정책을 진행하였다. 또한 개성과 개풍지역을 중앙 정권에 직속시키고, 허정숙 등 고위 지도부를 파견하여 개성시당과 인민위원회 조직을 담당하게 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 지역을 장악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졌다.⁴⁸⁾ 이처럼 ‘신해방지구’ 정책은 전후복구 시기까지 꾸준

45) 「용진 및 남연백군 당단체들과 정권기관들의 사업강화에 대하여(당 중앙정치위원회 제108차 회의 결정서(1951. 12. 2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편), 『1947. 8~1953. 7 당 중앙정치위원회 결정집』, 39-41쪽

46) 『조선중앙통신』 1953. 12. 3.

47) 『개성신문』 1956. 6. 9. 「신해방지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한 내각 명령 하달」; 『개성신문』 1956. 6. 13., 「내각명령 제 47호를 열렬히 지지 환영」

48) 「개성, 개풍 등 해방지구에서 당단체들과 정권기관들의 사업강화에 대하여(당 중앙정치위원회 제108차 회의 결정서(1951. 12. 2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편),

히 진행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북한 정권의 안정적 통치와 북한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하였다.

북한의 전후복구 과정과 사회주의 경제발전이 진행되면서 개성지역도 북한사회의 변화·발전에 발맞추어 나갔다. 특히 개성은 과거의 유산과 지리적 특성을 잘 살려 경공업도시·국경도시·역사문화도시로 변화되었다.

3. '개성'의 도시구조와 공간적 재구성

1) 개성지역의 연속성

(1) 개성시 재건설사업 원칙과 도시발전 방향

앞에서 서술하였지만 개성은 한국전쟁 당시 대규모 폭격을 피하면서 성곽과 조선시대 주거지역, 도로 등을 보존하였다. 이에 북한 당국은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도시구조 및 경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성 도시재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개성의 도시재건설사업은 1955년 4월 12일 내각에서 「개성시 복구 건설을 위한 총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내각결정 제41호로 채택된 이 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고려시대부터 유지해왔던 옛 도시의 모습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복구 기본계획에는 “조선식 건물들과 유서깊은 고전 건축물을 보존하며, 그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민족적 건축 구획”을 유지·발전할 것을 명시하였다. 여러 차례 개성을 방문한 김일성 역시 개성을 역사문화도시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⁴⁹⁾

『1947. 8 ~ 1953. 7 당 중앙정치위원회 결정집』, 37~38쪽
49) 교육도서출판사, 1990 『조선지리전서』, 89~90쪽

이를 기반으로 개성시는 그동안의 역사성을 유지하는 한편 그 위에 사회주의적 기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재건되었다.

그 결과 개성은 문화유적을 바탕으로 역사관광의 도시로 성장 방향이 설정되었다. 남대문에서 송악산 기슭까지 이어진 약 300여 채의 조선시대 기와집 거리를 ‘조선기와집거리’로 명명하고, 특별히 관리·보존하여 현재에도 주민들이 거주하도록 하였다. 그중 자남동의 일부 한옥은 개조하여 ‘민속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여관은 총 부지면적 12,000㎡에 건축면적 5,079㎡로 50여 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속여관은 기본건물과 보조건물이 ‘口’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개울을 가운데 두고 동쪽에는 침실, 서쪽에는 식당, 연회장, 상점 등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조선기와집거리’에는 주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고려약국(한약방), 민족식당, 국수집 등 편의 시설도 정비되어 있다. 또한 민속거리에 신축하는 건물들은 고전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 경관을 맞추도록 했다.⁵⁰⁾

또한 자남산과 송악산, 선죽교, 고려성관관, 만월대, 박연폭포, 공민왕릉 등 유적지 주변을 정리하여 개성의 역사성을 계승하도록 했다. 특히 북한 정권이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로 이어지는 역사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개성지역에 남아있는 고려 유적지에 대한 보호·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려의 교육기관이며, 북한에 남아 있는 옛 건물 중 규모가 가장 큰 고려성관관은 1988년부터 ‘국립고려역사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다. 고려 말 유학자인 정몽주를 기념하고 있는 송양서원과 고려 31대 왕인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무덤인 현릉과 정릉 역시 북한의 국보로 지정·관리하면서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⁵¹⁾

개성시 재건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사업도 진

50)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조선향토대백과 2 : 남포시·개성시·라선시』, 평화문제연구소, 253쪽

51) 조선중앙사전전사, 2004 『고려의 옛수도 개성』, 30-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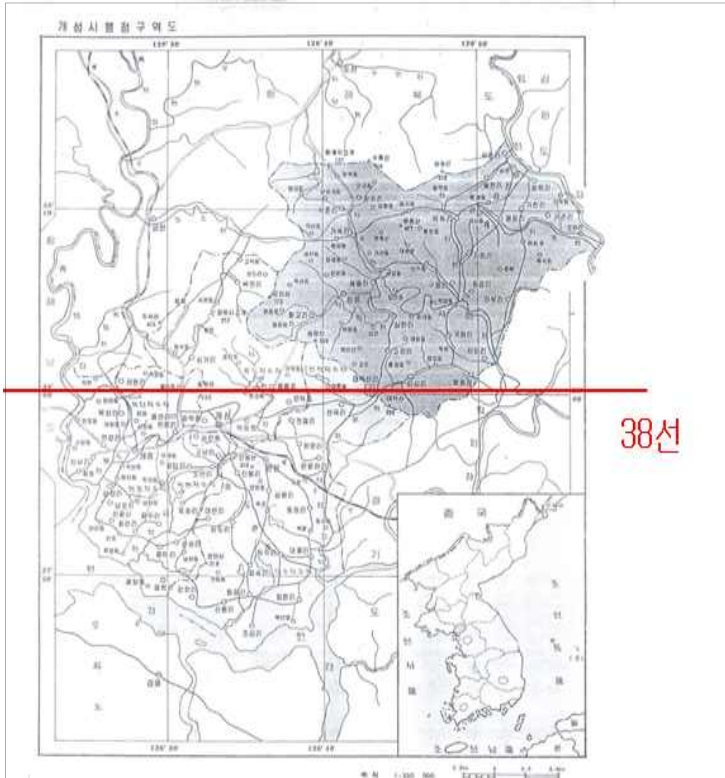
행되었다. 1916년 건립한 일본신사를 철폐하였으며,⁵²⁾ 소년형무소는 방직 공장으로 개조하여 이용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피해를 피했던 일제강점기 건물은 대부분 수리와 보수하여 다시 이용하였다. 과거 부청과 군청도 일제의 흔적을 지우고 송도사범대학과 개성시 행정경제위원회로 이용하였고, 학교들도 수리보수를 거쳐 대부분 다시 활용하였다. 송도선죽중학교는 1912년 송도제일보통학교(송도소학교)의 교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체육전문학교는 일제강점기 송도중학교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호스돈여학교와 미리암여학교, 정화여학교 등도 학교의 교사로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개성시 재건사업은 도시의 역사성을 기반으로 하고, 전쟁 직후 부족했던 물자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존에 있었던 도시기반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2) 주민거주지와 교육시설의 확대

북한의 도시계획에서 주민거주지는 그 지역의 가장 '우수한 장소'에 세워진다. 주택건설은 지대의 경사가 10%가 넘지 않아야 하고 홍수에 침수되지 않아야 하며, 습지와 늪, 연못이 있는 낮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지정되어야 한다. 충분한 녹지와 녹화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며, 교통은 편리하되 산업과 철도교통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피해가 없는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⁵³⁾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거주지가 신설 혹은 보충되었다.

52) 자남산 신사가 철폐된 자리에는 김일성동상이 건립되었으며, 1968년 9월 9일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혁명사적을 진열하는 '개성시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이 개관되었다.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앞의 책, 255쪽

53) 김청희, 1953 앞의 책, 144~149쪽



〈그림 4〉 개성시 행정구역도

(출처: 정보시령부, 2005 『북한지지 : 개성직할시』, 45쪽)

그러나 개성지역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상황에서 기존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개보수사업과 확장사업이 진행되었다. 주거지역은 개성시 복구 기본계획에 따라 고려시기 이후 주요 주거지역이었던 남대문 서쪽거리와 동부, 북부거리에 집중되었다. 앞에서 서술하였던 북안동과 자남동, 해운동, 고려동 등 전쟁의 폭격을 피했던 전통적인 주거지역과 함께 전쟁 후에는 개성역에서 남대문까지 이어진 송도로를 중심으로 아파트를 세워

부족한 주거지를 보충하였다.

또한 1970년대부터는 남대문에서 선죽교 방향으로 이어진 청년로와 덕암리, 운학거리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동부지역의 주거지를 정비했다. 거주지 주변에는 증가하는 인구에 맞게 목욕탕인 '자남원'과 같은 주민편의시설과 병원, 극장, 초급학교를 세웠다. 개성역과 남대문 사이에는 행정관청을 조성하여 광장과 인민위원회 종합청사 등을 배치하였다. 이처럼 주거지역이 지속적으로 정비되면서 현재 개성시의 주거지역은 한국전쟁 이전에 비해 2배 정도로 넓어졌다.⁵⁴⁾

개성은 일제강점기부터 학교가 많은 것으로 유명했다. 그 명성처럼 한국



〈그림 5〉 개성의 고등교육기관
(출처 : <http://wikimapia.org>를 참고하여 재구성)

전쟁 중에도 폭격의 위협에서 벗어나자마자 빠른 속도로 학교를 복구하고 교원을 확충하였다. 1951년 12월 개성시에 '개교준비위원회'와 '학교수리위원회'가 조직되었고, 24일 고려인민학교를 비롯한 인민학교가 일제히 개교하였다. 현재 개성시에는 인민학교 15개, 고등

중학교 17개, 전문학교 7개, 대학교 3개가 있다. 고려성균관대학은 고려시기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을 계승하여 경공업종합대학으로 재편되었다.⁵⁵⁾ 현재 고려성균관대학은 인삼학부와 도자기학부, 수예학부 등 경공업 부문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고려성균관 앞쪽에 새로운 교사를 마련하여 이용하고 있다. 개성공산대학은 조선로동당의 간부

54) 송경록, 2000 앞의 책, 137~139쪽

55)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앞의 책, 256쪽

양성기관으로 1959년 개성시 간부학교로 발족되었다가 1960년 9월 1일에 개성공산대학으로 개편된 학교로,⁵⁶⁾ 현재 개성역 근처에 교사가 있다. 송도사범대학은 1961년 9월 개성교원대학으로 시작하였으며, 1971년에 개성사범대학, 1973년에 송도대학, 1997년에 송도사범대학으로 개칭되었다. 송도사범대학의 교사는 일제강점기 경찰서가 있던 북안동에 있다. 이외에도 개성예술전문학교, 체육전문학교, 경제전문학교, 물리전문학교, 의학전문학교(안영애학교), 공업전문학교 등의 전문대학이 있어 개성지역에 맞는 경제 및 산업, 문화예술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

(3) 경제 및 산업 전통의 계승·발전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이래 개성지역을 지탱했던 산업은 상업이었으며, 경공업지역으로도 유명했다. 그중 ‘송도직물’은 조선시대부터 지역특산물이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송고실업장’을 중심으로 개성의 대표적인 근대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송고실업장은 1919년 송도고등보통학교 실습실에서 시작된 양말제조공장인데, 미국에서 양말기계를 도입하여 직물산업을 기계산업으로 전환시킨 공장으로 유명하였다. 미국의 남감리교회⁵⁷⁾ 설립·운영하다가 1943년경부터 김정호를 비롯한 개성지역의 유지들이 인수하여 경영하였는데, 해방 직전까지 약 300명이 근무하였고, 상품의 다수를 수출할 만큼 질이 우수했다.⁵⁸⁾

56) 위의 책, 255쪽

57) 개성은 1887년 이후 남감리교회가 중심이 되어 기독교 선교를 했다. 특히 남감리교회는 개성지역에 호수둔여학교와 송도고등보통학교 등을 설립하여 개성지역에 근대교육을 확대시켰다. 김진형, 2006 『해방이전 한국감리교회 선교학교(Mission schools)의 발전과 교회사회적 위치연구(1885-1945)』, 호서대학교 신학과 박사학위논문, 22-52쪽

이에 북한 정권은 개성지역에 송도직물을 바탕으로 한 경공업을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직물산업의 지원은 전쟁과 분단으로 남성들의 부재 속에서 가정을 건사해야 했던 여성들을 고려한 것이기도 했다. 홀로 남은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와 '월남민 가족'이라는 차별을 피하기 위해 소비조합이나 협동농장에 소속되었다.⁵⁹⁾ 그리고 가정마다 수직기를 놓고 천을 짜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개성지역의 여성들은 직물공장과 방직공장에 출근했다. 그 결과 개성지역의 대표적인 경공업은 방직산업이며, 면직·피복공업 등 섬유공업이 함께 발달하였다.⁶⁰⁾ 그중 '국영중앙경공업공장'은 김일성의 현지도 이후 일제강점기 형무소를 개조하여 만든 개성방직공장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1급기업소로 발전하여 개성을 대표하는 산업시설이 되었다.

이밖에도 운학1동에는 자켓과 스웨터, 양말을 생산하는 개성편직공장이, 보선동에는 각종 실을 생산하는 재봉사공장이 만들어졌다. 또한 용산동에는 각종 담요와 천, 보자기류를 생산하는 담요 생산협동조합이 있어 송도 직물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다.

방직산업과 함께 개성을 대표하는 산업은 인삼가공공업이다. 현재까지 개성지역의 여러 농업협동조합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으며, 인삼을 이용한 다양한 식료품과 주류를 생산하면서 '인삼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일제강점기 인삼건조장이 있었던 곳에 세워진 '국영개성양조공장'에서 만든 인삼술은 1961년부터 수출을 시작하였고, 이후 '개성고려인삼주공장'으로 개칭되어 인삼연구소와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고려자기의 특성을 계승한 도자기산업과 30만 점 이상의 유리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유리산업도 개성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58) 김종규 외, 2006 『한국 면방직공업의 발전』, 국사편찬위원회, 103~117쪽 참조

59) 박소영, 2010 앞의 논문, 251~255쪽

60) 송경록, 2000 앞의 책, 140~42쪽

2) 사회주의 도시 ‘개성’의 변화

(1) 도시중심축의 변화

앞에서 서술하였지만 개성은 한국전쟁 당시 폭격을 피하면서 고려시대 성곽과 조선시대 주거지역 등을 보존하였고, 그 도시구조 위에 사회주의적 기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개성은 자남산을 중심으로 반경 1km 정도의 동심원 안에 주거지와 행정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동심원 밖으로는 개성사범대학과 예술전문학교, 개성공산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이 배치되었다. 개성시 동쪽 외관인 부산동, 운학동, 동흥동과 관문점으로 나가는 길의 좌우에는 방직공장과 기계공장, 식료공장 등 지방공장과 경제산업시설이 마련되었다. 이 같은 개성시 도시구조는 노동자 주거지 주변에

공장과 사무실 등 경제시설을 근접시키는 ‘직·주 근접의 원칙’에 부합하고 있다.

사회주의 도시로 재탄생한 개성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도시중심축이 옮겨진 것이다. 과거 개성은 고려 황궁의 정문이었던 광화문에서 남대문 밖 남북과 동서를 잇는 십자로였다.⁶¹⁾ 고려시대 기록에 의하면 광화문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큰 세로축 도로인 북부거리에는 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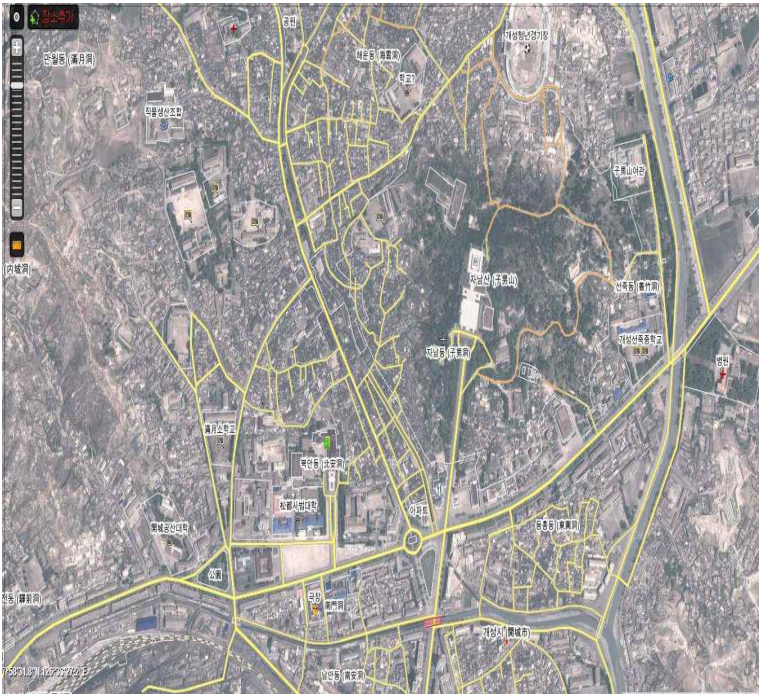


〈그림 6〉 개성시 지도

(출처 :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조선향토대백과 2 : 남포시·개성시·라선시』, 평화문제연구소, 246쪽)

61) 고동환, 2009 앞의 논문, 335쪽

우에 1,008동의 가옥이 있었고,⁶²⁾ 큰 시장이 형성되어 상점이 늘어서 있어 도시의 중심축 역할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도 남대가 주변의 시장은 활발하게 운영되어 개성시의 중심을 잡았으며, 개성역과 남대문을 지나 선죽교를 지나는 가로축 도로가 중심축 역할을 하였다.



〈그림 7〉 개성의 주요 도로

(출처 : <http://wikimapia.org>를 참고하여 재구성)

그러나 현재의 개성시의 세로 중심축은 자남산 마루의 김일성동상에서부터 남대문까지의 통일거리로 이동되어 있다. 1960년대 전국적으로

62) 리성순, 2002 앞의 논문, 23쪽

김일성동상과 혁명사적관이 건립되면서 일제강점기 신사가 있었던 자남산 마루에 김일성동상이 세워졌고, 넓은 광장과 혁명사적관이 배치되었다. 남대문에서 자남산에 있는 김일성동상까지 도로인 통일거리의 폭이 25m으로 확장되고, 도로 양옆으로 고층아파트와 영화관·출판기관 등 문화시설이 배치되면서 통일거리는 신흥 주거지로 발전하였다. 또한 통일거리가 개성인터체인지까지 연결되면서 통일거리는 개성의 세로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남대문을 가로로 지나가는 가로축은 현재에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남대문에서 개성역을 지나가는 송도로 양옆에는 개성시 행정경제위원회와 송도사범대학, 개성학생소년궁전, 개성신문사, 개성극장 등 행정·경제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남대문에서 선죽교 방향으로 나있는 청년로에는 통일관과 개성백화점, 고려인삼판매소, 개성인민병원 등 주민편의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2) 도시 공적기능의 확대 및 주민편의·문화시설의 배치

재건사업을 통해 개성시에도 사회주의 도시에 있는 일반적인 시설들이 설치되었고, 기존 시설들이 확충되었다. 주거와 생산시설이 결합되었으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교양 및 편의시설들이 만들어졌다.⁶³⁾ 특히 광장이 만들어졌다. 북한의 도시에서 광장은 각종 문화행사와 경축행사, 군중대회가 진행되는 장소이며, 그 주변에 행정기관을 비롯한 주민서비스 시설을 배치하여 도시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개성 역

63) Richard Overy는 그의 저서 ‘독재자들(THE DICTATORS)’에서 사회주의 도시는 체제의 사회적 목적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으며, 당시와 노동궁전, 집회소, 광장 등을 통해 대중이 공동체적 연대를 확인한다고 했다. Richard Overy 저, 조행복 역, 2008 『독재자들 -히틀러 대 스탈린, 권력 작동의 비밀-』, 교양인, 342쪽

시 1916년경 대화정의 시장이었던 자리를 정비하여 광장으로 만들었고, 북안동 학생소년궁전 앞에도 광장을 만들고, 그 주변에 극장과 개성신문사⁶⁴⁾ 등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집결지로 만들었다.

개성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양 및 체육시설도 만들어졌다. 개성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과외교양기관인 학생소년궁전이 북안동에 건설되었다. 학생소년궁전은 북한에서 '조선의 미래가 자라는 종합적인 과외생활 거점'으로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건설되어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과외활동을 경험하는 곳이다. 개성학생소년궁전은 1956년 내각결정 제7호에 의해 1957년 8월에 착공하여 1961년 6월 6일 개관한 것으로, 1963년에 개관한 평양학생소년궁전보다도 빨리 만들어졌다. 개성학생소년궁전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처럼 기와지붕을 얹혀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하고, 그 앞에 광장과 공원을 꾸며 하루 평균 3,000명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자남산 북쪽에는 개성청년경기장이 만들어졌다. 북한은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를 위해 체육시설의 확충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각종 정치집회와 집단체조 등을 위해 대규모로 건설되었다. 1988년에 준공된 개성청년경기장은 축구, 농구, 실내배구장 등을 구비한 종합경기장으로 건평 10,000㎡, 수용능력 35,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체육시설이다. 또한 만월대 근처에 있는 동물원과 자남동에 있는 개성물놀이장을 만들었고, 2013년에는 자남산 기슭에 400여㎡ 정도의 새로운 동물원을 개장하여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하도록 했다.⁶⁵⁾

대부분 지방도시처럼 개성에도 노동자의 휴식과 청소년의 집단생활을

64) 당시 개성신문은 1954년 약 1만부 발행가 발행되었으며, 개성주민들은 개성신문을 통해 전쟁과 전쟁 이후 변화하는 개성시의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김일성, 1997 「개성시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 전집』 17,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372쪽

65) 『연합뉴스』 2013. 5. 8.

교육하기 위해 박연휴양소와 개성소년단 야영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박연휴양소는 개성 중심지에서 약 27km 떨어진 박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성소년단 야영소는 개성시 부산동에 조성되어 있다.

(3) 사회주의 경제로의 재편 및 교통시설의 변화

고려시대부터 황도였던 개성에는 여러 시장이 있었다. 지금의 남대문로에 해당하는 남대가 좌우에 시전이 설치되어 있고, 유시(기름시장)와 저전(돼지시장), 지전, 미전 등 다양한 시전이 있었다. 고려의 황도로서 번성하던 시전들은 조선시대 개성이 ‘상인의 도시’로 거듭나면서 그 규모를 유지하였고, 개성에 있었던 4개의 시전은 서울 6의전과 경쟁할 정도로 성장하였다.⁶⁶⁾ 일제강점기에는 인구의 30% 가까이가 상업에 종사할 만큼 많은 개인상공업자들이 존재했다.⁶⁷⁾ 당교시장은 남대가 오른쪽에 흐르는 백천(白川)에 놓은 당교근처에 조성된 시장으로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후반까지 국영시장과 250여 개의 개인 매대가 있을 정도로 성행하였다.⁶⁸⁾ 남대문 남쪽에 있었던 도교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국영 수매상점과 공업품 상점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1958~1959년 협동조합이 완성되고 많은 상공업자들은 공장 노동자가 되거나 농업협동조합 혹은 소비조합으로 흡수되면서 시장은 점차 축소되었다. 현재는 도교시장만이 ‘개성중앙시장’으로 개편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개인상공업이 축소된 자리에는 사회주의적 경제산업시설이 들어섰다.

66) 박평식, 1998 「조선전기의 개성상업과 개성상인」 『한국사연구』 102, 198쪽 ; 홍하상, 2004 『개성-개성상인』, 국일미디어, 17쪽

67) 『개성신문』 1957. 11. 3.

68) 『개성신문』 1956. 4. 18.



〈그림 8〉 개성의 공업 및 공공시설 분포도
(출처 : 정보사령부, 2005 『북한까지 : 개성직할시』, 213쪽)

북한 도시계획에서 산업시설은 주거지에서 접근하기 쉬우며, 철도와 도로와 인접하여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고, 같은 종류의 다른 산업 기업소들과의 협력 가능성, 거주지역의 확장까지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⁶⁹⁾ 개성의 경우에는 지하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대신 많은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직과 경공업업을 중심으로 산업시설이 배치되었다. 경공업

69) 김청희, 1953 앞의 책, 148~149쪽

공장은 대부분 주거지 밀집지역에서 약간 떨어진 자남산 원편에 있는 용산동에 집중 배치하였으며, 유해사업은 덕암리에 배치하도록 했다.⁷⁰⁾ 화학공업이나 제약공업, 기계공업 등 중화학공업은 판문점으로 가는 길에 배치되었다.

개성은 고려시대부터 예성강과 임진강을 이용한 수상운수가 발달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철도가 지나면서 육상운수도 발달해 있었다. 철도선으로는 1904-1906년 건설한 경의선의 일부인 평부선이 이어져 있고, 개성 지역에는 개성역과 개풍역, 여현역이 건설되어 있다. 2007년 남한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개성역 신역사’를 건설하였지만, 현재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도로·자동차 운수는 개성의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이다. 특히 장풍군과 판문군에는 철도가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도로와 자동차 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방 후에 평양-개성을 잇는 1급 고속도로와 시 중심지역의 도로들을 신설하거나 확장하였다. 그 결과 개성에는 개성-해주, 개성-원산을 잇는 2개 노선의 2급 도로와 개성-판문-개풍, 개성-석둔, 개성-원산을 잇는 3개 노선의 3급 도로가 있으며, 4급에서 6급까지 소규모 도로들이 건설되어 있다. 특히 평양과 개성을 잇는 1급 도로는 황해북도 금천군 계정리, 개풍군 해선리를 거쳐 개성 시내를 지나 판문군 평화리와 판문점까지 연결된다. 또한 판문점과 신의주 사이에 연결된 1번 도로는 평의선 철도와 병행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으며, 압록강 철교(조·중친선교)를 통해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⁷¹⁾

이처럼 철도와 도로를 이용한 교통은 발전한 반면 한국전쟁 직전까지도 활발하게 이용하였던 예성강과 임진강을 이용한 수상운수는 쇠락하였다.

70) 『로동신문』 1955. 4. 15., 「개성시 복구 건설을 위한 총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내각 결정 채택」

71) 정보사령부, 2005 『북한지도 : 개성직할시』, 159쪽

한국전쟁 이후 남북의 군사대치가 첨예한 가운데 예성강과 임진강 나루는 '한강하구중립지역(Han River Estuary Zone)'으로 지정되고 대부분 군사 시설로 포함되면서 하천을 이용한 운수시설과 포구들은 대부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4) 국가상징 및 기념시설 배치

북한에서 국가적인 기념시설은 주로 김일성·김정일과 관련된 시설을 의미한다. 북한 정권은 도시의 가장 중심에 동상을 세우고 그 주변을 공원화 하였고, 백두산 삼지연 혁명전적지와 보천보전투 승리기념탑처럼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관련된 장소는 '혁명사적지'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정권 및 경제 건설을 지도했거나 현지도도를 했던 장소에도 기념관과 기념비를 세워 관리하고 있다.

개성 역시 북한의 지방도시로 편입되면서 국가상징 및 기념시설이 만들어졌다. 자남산과 개성학생소년궁전에 김일성동상과 사적관이 만들어졌으며, 그 주변은 공원으로 만들었다. 또한 개성방직공장과 송도공산대학, 개풍군 용산리 풍덕평야, 개풍군 평화리에는 현지도사적비가 세워져 김일성의 현지도도를 기념하고 있다.

한편 북한도 남한의 현충원과 국립묘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국가추모 시설 운영하고 있다. 평양에는 1975년 대성산에 혁명열사릉을 조성하여 약 100명의 항일혁명투사들의 묘와 반신상을 세웠다. 또한 1990년에는 평양 신미동에 혁명열사릉보다는 한급 낮은 '애국열사릉'을 조성하여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 건설, 나라의 통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희생된 애국열사"를 추모하는 시설을 조성하였다.⁷²⁾ 그리고 주요 도시마다 한국

7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조선건축사』, 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그림 9> 개성의 주요 혁명사적도

(출처 : 정보사령부, 2005 『북한지지 : 개성직할시』, 188쪽)

전쟁 시 참전하였다가 희생된 군인을 위해 ‘조선인민군열사묘’를 건설하였다. 또한 개성·회창·운산 등 도시에는 북한과 중국 간의 우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국인민지원군열사묘’가 있다. 개성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희생된 12,000명의 중국지원군 유해와 함께 기념비를 두어 추모하고 있고, 자남산에서 북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방직동에 조선인민군열사묘

와 혁명열사묘, 중국인민지원군열사묘를 조성하였다.

맺음말

북한에 있어 개성은 일종의 '예외도시'라고 할 수 있다. 개성은 전쟁 중 폭격의 피해를 적게 입었기 때문에 과거의 흔적을 많이 간직한 도시로 재탄생하였다. 북한 당국은 개성의 재건을 고려·조선시기의 성곽과 도로를 따라 만들어진 도시의 틀은 유지하면서 식민지와 전쟁의 흔적을 지우고, 사회주의적 도시기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상인의 도시' 개성은 사라지고 대신 역사문화도시, 경공업 도시, 변경도시가 되었다.

2000년대 이후 개성은 또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고려시대 유적을 보존·발굴하기 위해 남북의 학자와 기술자들이 공동작업을 하고, 외부의 관광단을 유치하기 위해 개성에 대한 화보를 발행하기도 했다. 남한 관광단을 태운 버스가 개성 시내를 통과하여 마을을 둘러 통일관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 2013년에는 개성남대문과 성벽, 송양서원, 선죽교, 고려성군관, 만월대, 고려시대 왕릉 등이 포함된 개성의 역사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고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휴전선이 설치된 이후 군사지역이 밀집되어 있었던 개성 외곽에 설치된 개성공단은 새로운 남북협력 모델로 발전하였다. 서울과 이어진 경의선 도로가 만들어지고,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가 보수되는 등 도로와 철도 교통망도 다시 정비되었다. 개성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은 개성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1955년 이래 개성직할시였던 행정구역이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가 선포된 이후인 2003년부터는 '개성

특급시'로 변경되었다.⁷³⁾ 도시 외형의 변화와 함께 주민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개성의 주민 5만여 명은 개성공단으로 출퇴근을 하고, 시내에는 백화점과 개성공단 노동자 전용 상점도 생겼다. 이처럼 개성은 경직되었던 휴전선인근 국경지방에서 남북의 만남과 교류의 공간,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 이 논문은 재단법인) 아모레퍼시픽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투고일자 : 2015. 4. 23. 심사일자 : 2015. 5. 6. 게재확정일자 : 2015. 5. 20.

주 제 어 : 북한, 지방도시, 개성, 도시경관

Key words : North Korea, local city, Gaeseong, City landscape

73) 개성은 1960년 1직할시(개성시), 3개군(개풍·장풍·관문군)으로 행정구역이 정비되었는데,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가 선포된 이후, 3개였던 군은 개풍군·장풍군 등 2개 군(관문군 폐지)으로 재구성되어 황해북도로 편입되었고, 개성시는 2003년 개성특급시로 변경되어 황해북도에 편입되었다.

참고문헌

- 고유환·박희진, 2013 『북한도시 함흥·평성 자료해제집』 1, 선인
- 김두섭 외, 2011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통계청
- 김종교 외, 2006 『한국 면방직공업의 발전』, 국사편찬위원회
- 김진형, 2006 『해방이전 한국감리교회 선교학교(Mission schools)의 발전과 교회 사적 위치연구(1885-1945)』, 호서대학교 신학과 박사학위논문
- Nicos Poulantzas 지음, 박병영 옮김, 1994 『국가·권력·사회주의』, 백의
- 박소영, 2010 『북한의 신해방지구 개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체성과 지방통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 브루스 커밍스 지음, 김동노 외 옮김, 2001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창비
- 송경록, 2000 『북한 향토사학자가 쓴 개성이야기』, 푸른숲
- 정병준, 2006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 정보사령부, 2005 『북한지지 : 개성직할시』
-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조선향토대백과 2 : 남포시·개성시·라선시』, 평화문제연구소
- 편집부, 1999 『개성상인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출판시대
- 홍하상, 2004 『개성-개성상인』, 국일미디어
- 고동환, 2005 「조선초기 한양의 형성과 도시구조」 『지방사와 지방문화』 8-1
- _____, 2009 「조선후기 개성의 도시구조와 상업」 『지방사와 지방문화』 12-1
- _____, 2010 「한국 도시사 연구동향 -고려 개경과 조선 한양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07
- 김 먼, 2002 「독일국립문서보관소 소장자료를 통해서 본 북한과 동독의 경제협력」 『북한연구학회보』 7
- 민유기, 2007 「한국 도시사 연구에 대한 비평과 전망」 『사총』 64, 역사학연구회
- 양정필, 2007 「1930년대 개성지역 신진엘리트 연구」 『역사와 현실』 63
- 우성훈, 2010 「고려시대 개경 시장의 도시사적 위치에 관한 연구」 『대한건설학회 논문집』 26-5
- 이흥영, 1993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 속의 지방과 중앙의 역할」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5-2
- 임형택, 2009 「북한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 전망 -북한내부요인과 통일 이후 경

- 기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GRI연구논총』 11-3, 경기개발연구원
- 정종현, 2010 「일본제국기 ‘開城’의 지역성과 (탈)식민의 문화기획」『동방학지』 151
- 최석영, 2001 「일제강점기 박물관의 전시 성격 —개성·평양부립박물관을 중심으로—」『생활문화연구』 3
- 홍 민, 2013 「북한연구에서 ‘공간’이해와 도시사의 가능성」『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 한울아카데미

<Abstract>

Gaeseong as a Socialist City: What was changed, and What was not

Park, So-young

North Korea constructed cities according to Socialist ideology and the 'Juche' philosophy. Rather than large cities, North Korea built middle or small-sized cities in order to discourage frequent moving of peopl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overcrowded cities. Facilities that would enhance a city's self-sustainable nature were also established. Large squares, as well as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facilities, were installed to expand the city's public functions and space, and region-friendly industrial complexes were positioned there as well.

Currently, the South Korean scholars cannot possibly examine the North Korean cities firsthand, while very little data are made available as well. Only coming into the 2000s relevant studies started to gain momentum. Documents, testimonies from North Korean citizens who escaped, and other forms of visible data would hopefully provide us with details that would better ou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cities, changes in the population's lives, and of course, North Korea itself.

Gaeseong,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cities of North Korea, sustained relatively light damage from the war, so it was able to preserve historical remnants of the past, which had existed there ever since the Goryeo dynasty period. Now, Socialist city functions have been added to the original ones, and the city is growing into a city of history and culture, and also that of light industry. Gaeseong was recently named as part of World Heritage, and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s now continuously changing the face of the region.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the Gaeseong area and also changes in its status inside North Korean society will most surely affect the internal structure and landscape of the Gaeseong city as well.